

주일 2 부에배

10시 15분 - 전교인 찬양 연습

※ 예배로의 부름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송 영 우리주 하나님

목 회 기 도 정윤구 집사

봉 헌 / 감 사 봉헌: 김기연성도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전 성 도 찬 양 황무지가 장미 꽃 같이
(새 242: 1,3 절)

교 회 소 식

설 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강해 12(창 1:3-4)
구별=거룩

찬 양 / 기 도
• 내가 주인 삼은
• 주 은혜임을
• 거룩하게 하소서(새 422)

※ 축 도 강래성 목사

청지기 보고

지난주일 청지기 보고

연 보	3,599
감사연보	
특별수입	
합 계	3,599

월별사역계획

매주일오후 3 시-당회

첫째주-한가족특강

둘째주-동산모임

셋째주-부서별 모임

넷째주-소그룹 모임

다섯째주-제직회

성찬 -2 월, 4 월,
7 월, 11 월

6 월 회중기도 및 봉사 명단

	주일 1 부	주일 2 부	수요기도회	봉헌자
첫째	서성권	이의로	이영옥 (6/06)	김기연
둘째	우대성	임영규	임순희 (6/13)	
셋째	유창환	정윤구	정선희 (6/20)	
넷째	전현석	최용제	조재은 (6/27)	
다섯째				

교회의 교회됨 9

그러면 교회는 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지 말아야 하고 변화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다만 주지해야 할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는 좋은 인간관계와 사회참여 제도적인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개혁이라는 말이나 변화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교회를 지향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이 조직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직을 아무리 새롭고 이상적인 것으로 개편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교회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은 교회의 구조나 조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바가 없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고 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위에, 즉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뿐이다. 또한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에서도 교회의 조직은 등장하지 않으며 다만 사도행전에서 집사직이 유일할 뿐이다. 하지만 그것도 사도직과의 역할 분담이 목적이자 교회 조직을 위한 집사선출은 아니었던 것이다.

교회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취향과 판단이 개입된 개혁의 여부로 교회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개혁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비난을 받는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벗어 버리고 사회참여 등 정의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교회답게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개혁의 본질은 나 중심, 인간 중심의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 관점에서의 정의롭기 기준으로 교회다움을 말할 수는 없다. 때문에 교회다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앎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오직 말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을 때만 교회가 교회다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 때문이다.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면 제도와 조직을 개선해서 교회다움을 이루려고 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아예 벗어나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인간도 말씀의 요구에 완벽하게 일치된 자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 말씀을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없다.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의감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의와 비리가 사라진 소위 깨끗한 교회를 세우는 것뿐이다.

교회가 곧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으며,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됨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곧 사람이기에 참된 개혁은 교회의 제도와 조직의 개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회소식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 애찬후 각 부서별 모임을 갖습니다.
- ❖ 전재철 선교사님 멕시코 사역지 1 일 봉사
7/28/18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6 시에 출발 (문의: 서성권 집사)
- ❖ 여름 에덴 한글학교
-대상: 에덴의 자녀들
-일시: 6/16 ~ 8/4, 매주 토요일 오후 1:30 ~ 3:30
- ❖ 7/1 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문의: 금동성장로)
 - 1) 수요일 집회-설교자와 합심기도로 마친후, 교제및 필요시 각종 모임.
 - 2) 금요일 저녁기도회
- 7:30 ~ 9:00 개인기도시간 (담당: 돌아오는 주일 2부 기도자)
 - 3) 토요일 가정경건회
저녁 8 시에 각 동산점김이로부터 받게 될, 다음 날 주일말씀 묵상 및 기도
 - 4) 주일예배안내
- 1부 예배시간에 2층 교육부실에서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10:15 ~ 10:30 전교인 찬양연습
- 10:30 ~ 10:45 성경 봉독
- 10:45 ~ 11:00 예배를 위한 개인기도
- 11:00 예배로의 부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0:30 -EM (youth) - 오전 10:30, Jonathan Kim "Bucks Against the Wall" 1 Samuel 13 -유초등부 - 오전 10:40, 김은석 집사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20-24
수요기도회	오후 7:30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에덴교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의 울바른 선포
치리의 의 신실한 집행

제 2018 - 24 호

2018년 6월 17일

주일 1부 예배

※ 예배로의 부름 거룩 거룩 거룩(새 8)
목회기도 유창환 집사
하 이 텔 제 49 문 (인도자):
베 르 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요 리 문 답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제 18 주일) 답 (회중):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소식	
봉헌기도	
설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12(창 1:3-4) 구별=거룩
※ 찬양	거룩하게 하소서(새 422)
※ 축도	강래성 목사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는 장로: 강래성
다스리는 장로: 김부익, 금동성, 문명철
905 Euclid Street, Fullerton, CA 92832
<http://www.edenpchurch.org> C: 714.733.3486

